

COVER STORY



한국옷칠회화전

— 창원시립예술단 현선화 부수석

옷칠로 새로 태어난 미술, 옷칠 회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은행 KNB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옷칠 회화展(전)'에 수백 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창원시립예술단 현선화 부수석의 현대무용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연 이번 전시는 김성수 통영옷칠미술관장과 서유승·최은란·하정선·김한내·서수향·김미옥·이진숙 등 통영옷칠미술관 입주 작가 7명과 중국 출신 작가 3명의 옷칠 회화 작품 28점으로 꾸며졌다. 김성수 관장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경남도립미술관·부산시립미술관·영국 대영박물관도 소장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3 vol.016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역메세나협의회 최초로
100개의 결연팀을 달성했습니다

내일이 더 행복합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이 만나면,
예술단체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집니다.
기업에게는 더 성공적인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기업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 갈 더 큰 내일이 행복합니다.



Contents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3 vol.016



Love in Mecenat

- 경남의 대표 문화축제 / 유등축제, 대장경축전, 산청엑스포 20.
-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나눔의 시간 24.
- 즐거운 나눔티켓 / 해피해피 크리스마스 25.
- 아름다운 동행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26.

Special Theme 1

- 06. 2013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 메세나의 꿈, 하늘을 날다
- 08. 2013 경남메세나대회 / 큰 결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 10. 대상 수상자 인터뷰 / (주)원광종합건설 조성제 대표
- 12. 수상기업 인터뷰 / 2013 경남메세나대회 수상기업 인터뷰

People in Mecenat

- 문화예술영재상 수상자 / 성서영, 유채연, 이가은 32.
- 문화 CEO / 광득종합건설(주) 최광주 회장 34.

Special Theme 2

- 16. 메세나 기고 / 추운 겨울의 따뜻한 손길
- 18. 메세나 대담 / 경남메세나 6주년 전문가 좌담회

Fun in Mecen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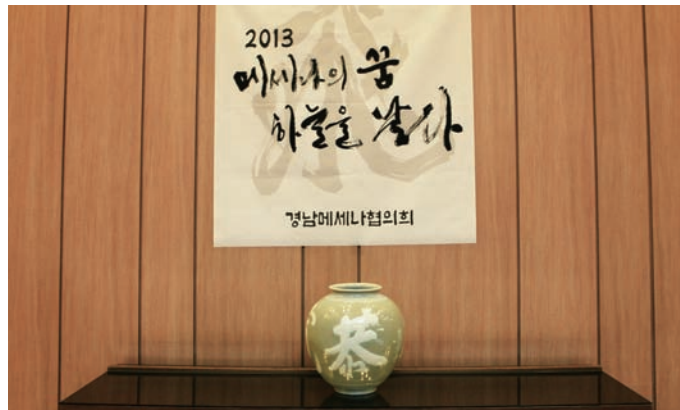
- 문화탐방 / 창원시 문화관광 Golden Route 36.
- 문화바평 / 보랏빛 세상 그리기 42.
- 캘리그래피 / 마음을 두드리는 손글씨 44.
- 자랑스러운 경남의 예술인 / 한국화가 김경현 46.
- 알려지지 않은 예술현장 / 박덕규 미술관 48.
- 특별칼럼 / 예술의 희망이야기 50.



발행인 박영빈 | 편집인 박덕운 | 진행 김은아
발행일 2013. 12. 31 | 발행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3 3층
연락처 Tel. 055 285 5611 Fax. 055 274 1923 |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 055 296 4995



GYEONGNAM MECENAT



2013

2013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메세나의 꿈, 하늘을 날다

글/사진 경남메세나협의회

한가위도 지나고 가을의 초입에 들어선 9월 26일 저녁, '2013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열리는 호텔인터내셔널 그랜드볼룸에 들어서자 입구에 걸려있는 커다란 서예작품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날아오를 새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흰 종이에 “2013 메세나의 꿈, 하늘을 날다”라는 붓글씨가 마치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멋진 형상을 이루며 힘 있게 그려져 있었다. 학서 박금숙 선생이 경남메세나 결연 100개 팀 달성을 축하하며, 앞으로 메세나와 함께 경남의 문화예술이 찬란한 꿈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작품이다.

로비 다른 한 칸에는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사람들로 북적인다. 식전행사로 문화이벤트 캐리커처 그리기가 한창 펼쳐지고 있었다. 캐리커처 작가로서 경남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박상근 화백의 섬세한 손끝에서 풍부한 표정을 가진 캐리커처들이 탄생하자, 지켜보던 이들이 감탄을 쏟아낸다. ‘캐리커처’가 미술의 한 분야로서 메세나 결연식을 통해 그 특유의 유쾌함을 맘껏 드러낸 시간이었다. 김민희 아나운서의 안내 멘트로 드디어 결연식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81개 팀 결연에 이어 올해 꿈의 100개 팀 결연이 이루어짐으로써 경남메세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경남의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목관앙상블이 감미로운 목관 연주를 선보이며 먼저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박영빈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메세나가 2007년 10개 팀 결연으로 출발하면서, 과연 이 결연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설렘에서 염려도 많았지만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필요와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교류에 나섬으로써 창립 6주년을 맞은 올해 창립 때의 10배인 100개 팀 결연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경남메세나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믿고 성원해준 도지사 및 회원사 대표, 예술단체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남메세나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세나 발전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김오영 경남도의회장은 경남메세나의 활동으로 경남도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고마움과 격려를 전했다. 이어 메세나 발전과 경남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시상하는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박영빈 경남메세나협의회장에게 경남메세나가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경남도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패를 수여했고, 이어 박영빈 회장은 홍보대사 금난새 지휘자에게 경남메세나를 위해 많은 홍보노력을 기울여준 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어딜 가든 경남메세나 자랑을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한바탕 웃음을 주었고, 이어 경남메세나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홍보대사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제 본격적인 결연식 세레모니가 펼쳐졌다. 아나운서의 호명에 따라 결연 기업과 예술단체 대표가 무대에 올라 나란히 서서, 기업은 청색, 예술은 홍색 머플러를 서로의 목에 걸쳐주고 악수를 나누며 앞으로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포토타임 후에도 많은 이들이 무대에 남아 사진촬영을 하고 축하와 감사 인사를 나누며 결연의 기쁨을 이어갔다. 지금까지는 본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자리가 비곤 했는데, 이날은 참석자 거의 모두가 만찬까지 함께 하면서 빈 자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제 메세나 결연식은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닌, 기업과 예술이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즐겁게 어울리는 축제로 자리 잡는 듯하다. 경남메세나협의회로 하나 된 기업과 문화예술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건배를 외치며, 모두 한마음으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였다.

한 해가 저물 즈음이면 각계각층에서는 지난 1년의 시간을 사자성어로 정리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다. 취재 하루 전, 2013년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메세나대회가 열렸다.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예술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 박영빈 회장을 비롯한 도내 기업인, 유관기관단체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과 서양음악 최고기량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폴림양상블’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문득 떠오른 단어. 진광불휘(眞光不輝).

겉으로 요란하기보다 필요한 곳에서 조용히 100개 팀의 결연을 이루어낸 경남메세나협회의 2013년을 가지는 진광불휘로 요약했다.

따사로움이 봄벌처럼 느껴지던 12월 5일, 창원 리베라컨벤션 7층 그랜드볼룸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메세나대회가 열렸다. 경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예술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 박영빈 회장을 비롯한 도내 기업인, 유관기관단체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과 서양음악 최고기량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폴림양상블’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GYEONGNAM MECENAT AWARDS 2013

큰 결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2013 경남메세나대회

글 진강숙 / 사진 구제영



박영빈 경남메세나협의회장은 “창립 당시 메세나의 꿈이자 목표였던 예술결연 100개 팀, 회원사 200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경남메세나가 경남의 신성장 문화인프라로 부상했다”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경남만의 메세나 컬처를 자축하며 메세나 활동에 헌신적 역할을 다해준 회원사와 메세나상을 수상한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한 기업에 주어지는 경남메세나대상 영예의 대상은 원광건설(주)(대표이사 조성제)가 수상했다.

‘경남사진예술연구원’, ‘경남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문화예술 후원’, ‘봉암갯벌 환경 가꾸기’,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조성제 대표는 “메세나 활동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 덕분에”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남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공로를 치하하는 메세나인상은 ‘창원국악관현악단’ ‘극단 미소’와 결연 중인 강태룡 (주)센트럴 회장이, 문화공헌상은 ‘경남윈드오케스트라’, ‘마산예총’과 결연·후원중인 한국아나세(대표이사 우영준), 문화경영상은 함안군 지역의 ‘함안군여성합창단’을 발굴·후원중인 비에이치아이(대표이사 우종인), 기업과 문화예술의 파트너십을 발휘한 Arts&Business상은 중앙금속(주)(대표이사 정영건)과 한국문자문명연구회(회장 김종원)이 수상했다. 이밖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문화예술영재상’은 이가은(첼로·서울예술고등학교 2년), 성서영(바이올린·부산예술중학교 2년), 유채연(플루트·호계초등학교 6년) 양이 차지했다.

2007년 출범 당시 79개 회원사와 10개 팀 결연으로 시작한 경남메세나.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예술결연 100개 팀과 205개 회원사로의 발전을 이룬 것 뿐만 아니라, 경남오페라단의 대한민국 오페라상 수상과 김경현 작가의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대상 수상 뒤에도 경남메세나가 있었다. 도내 기업들의 문화예술 사랑과 성숙한 문화마인드가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메세나 운동의 중심, 경남메세나의 현재다.

GYEONGNAM MECENAT AWARDS 2013



GYEONGNAM MECENAT AWARDS 2013

글 진강숙 / 사진 구제영

2013 경남메세나대회 대상기업 원광건설(주) / 대표이사 조성제

여백의 무게감을 아는 기업가 생활 속 메세나를 외치며 나누어 가는 작가



125분의 1초, 200분의 1초...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담는 사진작가.
개발과 자연의 공존을 믿는 이상적인 건축가.
필름 한 장에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자연과의 거리를 지키며 흑백의 나무와 바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2013년 메세나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광건설(주) 조성제 대표이사를 만났다.

그곳에 가지 않아도 더 속 깊은 그곳을 보여주는窓

1992년 원광건설을 창립한 기업가이자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환경사진작가 조성제 대표의 사무실엔 창이 가득하다. 창호지를 통해 눈부심을 한소끔 걸러낸 햇살은 보는 것만으로도 따사롭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 이사로 첫발을 내디딘 그는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사진에 솔로 보여주며, 지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때 봉암은 폐허였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게도 꼬시락도 철새도 돌아왔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습지의 건너편엔 공장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환경 파괴와 동의어처럼 여겨지던 ‘개발’이라는 것과 살아 숨 쉬는 ‘환경’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에게 ‘사진작가’라는 이름을 얻어 준 봉암의 순간들은 ‘습’이라는 전지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만의窓으로 걸러낸 시간은 그곳 어디에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낮설고 아름답다.

‘white space’ ‘경남사진학술연구원’

같은 습지지만 다른 매력을 내뿜는 봉암과 주남과 우포에서 어떨 땐 우두커니 서 있거나 하다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 다가올지 모를 희열의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Photo Telling을 만들어 나가는 조성제 대표는 2010년, 목표가 뚜렷한 전시를 했다. 장애인재활협회 회장직을 맡으며 장애인 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전시한 ‘white space’展이다. 주남저수지를 담은 작품들로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장애인 예술인을 지원하며 스스로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도우며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비춰지지 않을 날을 기다린다.



기업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필요성을 늘 체감하고 있었기에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 시 스스로 지원하여 메세나에 가입, 협의회 이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광건설(주)과 ‘경남사진학술연구원(원장 김관수)’이 메세나 결연을 맺고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GIPF : Gyeongnam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민들에게 사진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사진이 문화예술차원으로 한걸음 더 승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생활 메세나

전 임직원 가족들이 분기별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연극, 전시회 등을 함께 관람하는 일이나 민, 관으로부터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상과 직함과 지원은 생략한다. 원광건설(주)에는 창사 이래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원원 사업과 하도급거래 100% 현금지급이다. 건설업계에서 당연시하는 당좌 및 약속어음 거래를 없앴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은 하되,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는 그의 신념처럼 하도급업체에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따듯하고 섬세한 그만의 장치다.

아침부터 부산떠는 관람이 아닌, 자투리 시간에 자신의 지갑을 열어 직접 티켓을 구입해 관람하는 습관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생활 속 소소한 메세나라 칭하는 사람. 기업가로서 작가로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사진이라며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조성제 대표의 다음페이지가 궁금하다.



기업환경이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꾸준한 열정과 애정으로 2013년 메세나의 품격을 드높인 수상자들을 만났다.

GYEONGNAM MECENAT AWARDS 2013

2013 경남메세나대회 수상기업 인터뷰

글 진강숙 / 사진 구제영

메세나인상



(주)센트랄 강태룡 회장

‘창원국악 관현악단’과의 결연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의 소중함보다 서양의 문화 예술을 더 고급문화로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주)센트랄 강태룡 회장. 메세나 결연 사업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의 향기’를 전하는 것인 만큼, 결연 예술단체가 가진 특징을 살려 기업과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작은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이 가진 아름다움을 전파해온 노력처럼, 향후에는 더욱 많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Arts & Business상



중앙금속 정영건 대표이사 / 한국문자문명연구회 회장 김종원

화려하게 보여주는 문화가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문자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중인 중앙금속 정영건 대표는 예술적 영감이 제품의 질적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문자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정치·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보탬이 되어 영광입니다. 당사 직원들과 문자문명연구회의 잦은 교류를 통해 몸소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도 가져 보고 싶습니다.”

한국문자문명연구회(회장 김종원)는 경남 창원 다호리 국가사적327호에서 출토된 기원전 2세기경의 ‘뫼’이 지닌 한반도 문자문명사적 의미를 알리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2009년부터 ‘문자문명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상은 문자문명연구회와 중앙금속의 정신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자, 더욱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책무로 여겨집니다.”

문화공헌상



(주)한국아나세 우영준 대표이사

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 믿는 한국아나세 우영준 대표.

‘경남윈드오케스트라’ ‘마산예총’과 결연·후원중인 한국아나세는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다방면의 후원을 하는 고향 마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역과 상생하는 롤 모델이다.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지원을 통해 기업과 문화예술이 서로 win-win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경영상



비에이치아이(주) 우종인 대표이사

함안군 지역의 ‘함안군여성합창단’을 발굴·후원하는 비에이치아이(주)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위치한 발전설비 제조·제작 중견업체로서 모로와 사천에 공장을 두고 서울과 포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우종인 대표의 신념은 메세나 결연지원에도 드러난다. 기업의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원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마저도 함안 군민과 경남도민을 위해 더 고민하고 열정을 불태우길 바란다.

“함안군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부와 문화예술 단체를 뒷바라지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영재상



마산호계초 유채연 / 부산예중 성서영 / 서울예고 이가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문화예술영재상’은 이가은(첼로·서울예술고등학교 2), 성서영(바이올린·부산예술중학교 2), 유채연(플루트·호계초등학교 6) 양이 차지했다.

이날 헝가리 민속무곡 Czardas(차르다시)_ Vittorio Monti (1868-1922, Italy)와 아르헨티나 탱고를 누에보탱고로 승화, 클래식음악으로 승화시킨 20세기 후반의 Libertango(리베로탱고)_ A.Piazzolla (1921-1992, Argentina)를 연주한 세 영재의 무대는 2013 경남메세나대회를 한껏 풍요롭게 했다.



물

김복근

지나온 길 돌아보면 푸르고 맑아진다
살다보면 야박한 세상이 눈물겨워
한 줄기 바람을 따라 출렁이는 은빛 파문

흐르다 갈라지다 굽이에서 합쳐졌다
더해도 하나
빼도 하나

저 빛나는 응집凝集
서로를 잡아당기는 연가를 부르고 있다

물이 물을 사랑하면 내수가 되고 강이 된다
‘숫구쳐 오르려면 몸을 낮추어야 해’
감돌아 속삭이면서 뒤흔치에 힘을 준다

김 복 근

- 시조시인, 문학박사
- 시조집 『눈개, 몸속을 지나가다』, 『클릭! 텃새 한 마리』, 『비상을 위하여』, 『인과율』
동시집 『손이 큰 아이』, 저서 『생태주의시조론』, 『노산시조론』, 과관문집 『바람을 안고 살다』 등 펴냄
- 경상남도문화상, 한국시조문학상, 한국문협작가상 등 받음
- 경상남도문인협회장, 한국시조시인협회부이사장, 거제교육청교육장 등 지냄

사진 신병철 (경남은행 부장·경남메세나협의회 홍보실장)

추운 겨울의 따뜻한 손길

글 김종희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아주 오래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 런던 다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며 행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바라보다니, 그 노인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가만히 다가가서 바이올린을 좀 만져보자고 했다. 노인은 그렇잖아도 손이 시렸던 차라 잘됐다 싶어서 낡은 바이올린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연주자가 바뀐 바이올린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새 연주자는 구슬픈 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쾌한 곡조의 노래를 계속해서 바이올린의 현에 실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하늘 아래 아름다운 선율이 퍼져 나가면서,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자연스럽게 둥그런 관람석을 이루게 되었다. 그 자리가 영국하고도 런던 한복판이긴 했지만, 귀가 열린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았다.

노인의 모자에 한 푼 두 푼 던져지던 동전이 수북이 넘치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이 운집하여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다. 이제는 1파운드짜리 금화를 던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안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말과 함께 목청을 높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파가니니다! 파가니니!”

그 외국인은 이탈리아에서 온 당대 바이올린의 거장 니콜로 파가니니(1784~1840)였던 것이다. 세계의 정상에 선 음악의 기량을 아끼지 아니하고 추운 길거리의 불쌍한 노인을 돕기 위해 거리의 악사를 자원했던 파가니니에게서, 우리는 그의 음악적 천재성보다 더 고귀하고 감동적인 인품의 향기를 보게 된다. 조그마한 명예나 지식, 외형만 화려한 권세나 재물을 가지고서도 현대판 귀족으로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는 완악한 세상이다. 우리 주변의 촌고 굶주리고 억눌리고 낙망한 이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내밀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런데 파가니니가 보여준 조력자의 퍼포먼스, 그 드라마틱한 재능 기부는 그가 살았던 시대 곧 19세기 중반까지의 모범 사례에 해당한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삶이 여러 모습으로 분화되고 빛과 어둠의 지경이 예각적으로 분리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조력과 후원의 개념도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그것이 개인적 온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이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는,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업 및 문화예술 양자가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의 모색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이후 후기산업사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추진력으로서의 기업은, 그 자기체제 내부에서의 공익성과 사회적 기여를 발양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또 물질과 정신을 함께 끌어안는 시너지 효과를 산출한다. 자기 발만으로 서기 어려운 문화예술이 기업으로부터 안정적 지속성의 도움을 받은 연후에, 그 예술적 혜택을 기업 및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매우 온당하고 자연스럽다.

메세나는, 로마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재상으로서 그때의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지원했던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Gaius Clin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된 프랑스어다. 그는 정치가, 외교관, 시인으로 활약하면서 당대에 문명(文名)을 떨쳤던 호라티우스(Horatus), 베르길리우스(Vergilius) 등과 친교를 갖고 그 창작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로마 문화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세기의 간극을 넘어서 그 문화 지원의 패턴을 본받자는

메세나 운동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관련 기구를 두고 있다. 그것은 기업의 차별화된 경영 전략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과의 바람직한 동반자 행보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실제적 지원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참으로 많이 성숙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의 취지를 유념한다면, 문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자들을 돌보는 데 더 주력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는 양극화의 해소도 이 가운데 효율적인 처방이 있을 것이다.

선한 도움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사람을 즐겁게 하고 멀리 떨어진 자리까지 밝게 한다. 선을 쌓는 곳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옛말은 저 옛날의 파가니니에게, 그리고 오늘의 선량한 기업들에게 꼭 같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산이 깊을수록 골이 깊듯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의 계절 앞에서 따뜻한 메세나의 정신이 더욱 소중해 보인다.

문화예술 전 분야 고른 지원으로 균등발전 모색해야

글 경남신문 이문재 부장 / 사진 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신문
문화체육부장 정오복

창원 the큰병원
행정원장 박창석

창원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박금숙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 한상우

경남메세나협의회
전무 박덕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메세나 활동이 6년째를 맞았다. 초창기 용어조차 생소했던 지역 메세나운동은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빈 경남은행장)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205개 회원사, 결연팀 105개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경남메세나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좌담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경남메세나협의회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오복 경남신문 문화체육부장 사회로 박창석 창원 the큰병원 행정원장, 박금숙 창원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상우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박덕운 경남메세나협의회 전무가 참석했다.

사회 지역 문화예술 후원을 위해 설립된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올해로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회원사는 물론 결연 예술단체도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협의회 박덕운 전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덕운 전무 발족 당시 7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했고, 후원 예술단체도 고작 10개 팀이었습니다. 창립 이후 회장사인 경남은행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었고, 경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지원도 컸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5개팀 결연, 205개 회원사를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는 한국메세나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양적인 성과와 함께 문화예술 현장의 고충을 드러내 지자체와 기업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나아가 이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또 지원이 늘어난 예술단체들의 왕성한 활동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가능하게 했고, 삭막한 기업에 문화경영이라는 신선한 바람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역 문화예술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 문화가 깊숙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사회 후원자인 기업과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또 메세나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한상우 박사는 협의회 대표 사업인 매칭펀드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박창석 행정원장 큰병원은 지난 2010년 협의회와 인연을 맺고 창원미술협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결연 단체를 늘려 현재 창원아시아미술제, 마산미술협회, 아르끼챔버오케스트라 등 모두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라면 지속가능한 문화경영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병원 내에 갤러리를 개관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 딱딱하고 메마른 보통의 병원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이 문화경영·창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셈이죠.

박금숙 회장 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지원을 받게 된 예술단체는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악하게 활동했던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인 창작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고, 기량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보다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 유일의 가곡전수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고성오광대가 전수교육관을 설립해 전통을 후대로 계승하게 된 것은 메세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이처럼 메세나의 지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상우 박사 협의회는 여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경남도가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건당 최고 2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초창기부터 협의회가 도의 직접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좋은 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메세나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직접적인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 가능케 됐습니다. 2012년 한 해 6억원을 지원했는데, 협의회 참여 중소기업의 지원금 증가에 비례해 도의 매칭지원도 그동안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회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책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박덕운 전무 대기업 참여 확대를 먼저 꼽아야겠군요. 경남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본사가 있는 수도권 메세나 활동에 치중하는 관계로 지역 메세나 활동은 저조한 편입니다. 울산이나 부산은 지자체에서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메세나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세액을 과감히 공제해 주는 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 기획·행정에 전문성을 갖춘 메세나 전문인력 충원에 필요합니다. 대부분 예술단체는 행정업무가 미숙한데, 이를 보완·지원해줄 문화예술도우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상우 박사 메세나 참여기업 대상의 확대 및 지원내용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직 개인 후원자나 출향인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창작이나 전시활동에 관련된 시설 공간 지원이나 경영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많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다각화도 필요합니다. 협의회 자체 사업의 확대와 활동 영역의 확대도 과제인데요, 앞으로는 특정목적의 자체 펀드 조성 등 협의회 차원의 자체 사업의 기획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원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예술펀드' 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인기 스포츠종목 육성이나 문화유산 보존,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이 좋은 예가 되겠죠.

박창석 행정원장 메세나 활동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 하면 바로 분야가 문화예술 전반에 고루 분포되지 않고, 몇몇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연극, 뮤지컬, 국악, 무용 등 공연예술의 경우 미술이나 서양음악에 비해 5% 수준에 불과하고, 전통예술이나 문학의 경우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지원이 편중되는 이유는 기업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균등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경남메세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금숙 회장 박전무님도 지적했지만 예술단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메세나 지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메세나 지원법 제정은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과 기업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기업경제가 살아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메세나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 창작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의회가 단체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기준으로 지원을 단절시킨다면 지역 예술의 맥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향후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상우 박사가 협의회 기능·역할 강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한상우 박사 협의회는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협의회 자체의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메세나 관련 조사·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지역의 문

GYEONGNAM MECENAT DISCUSSION

경남메세나 6주년 전문가 좌담회

화예술 활동 실태와 메세나 지원 관련 조사활동, 조세제도 및 관련 법률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메세나 활동 관련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협의회 차원의 회원기업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경영의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한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 경영과 문화마케팅 등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홍보·정보 제공 강화,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창석 행정원장 큰병원의 메세나 활동은 단순한 기부나 지원 개념이 아닌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기업의 메세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있는 예술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은 그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순환입니다. 향후 지원의 영역과 기능을 더 확대해 예술단체와 병원과의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회에서 연주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예술단체를 통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를 배워보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문화예술 멘토링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박금숙 회장 회원사 협력사업으로 '찾아가는 공연', '미술작품 대여사업',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등이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지 않은 회원사를 포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사의 산업현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설 갤러리를 만드는 것, 회원기업의 환경이미지 벽화사업, 공장 유휴부지의 창작스튜디오 등 기업에 실질적인 문화의 옷을 입히는 사업을 메세나 수혜를 받고 있는 예술단체와 협력해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들도 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예술과 경영을 겸비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트 비즈니스 아카데미' 개설, '전문 예술 코디네이터'를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박덕운 전무 예술의 창의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류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문화경영 컨설팅을 제공, 기업과 단체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예술단체와 협의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강화해 문화예술 정보 교류와 행정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문화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개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특화사업 확대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신문의 주최로 열린 이번 좌담회는 12월 2일자 기사로 게재되었으며, 이를 경남신문 측에 요청하여 원고로 작성하였습니다.

CULTURE FESTIVAL IN GYEONGNAM

경남을 대표하는 세가지 문화축제

글 한만선

진주남강유등축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빛

강물에 두둥실 떠 오른 오색의 화려한 물결. 빛은 어둠을 찾고 어둠은 빛을 쫓는다. 소란스러운 공간은 뛰노는 아이들의 차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이면 진주성 인근의 남강에는 아름다운 유등축제가 열린다. 서울과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유등축제를 보러 몰려온다. 영혼을 치유하고 위안도 얻는다. 소망을 담은 손바닥 크기의 불빛이 강을 가득 메우면 마침내 축제는 화룡점정으로 치닫는다.

이 정도면 힐링의 성지로 불릴만 하겠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한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기원은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주성을 사수하였던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과 관군, 백성들은 성 바깥에 있는 의병과의 연락을 위해 하늘로 등을 띄우고 남강에 등불을 흘려보냈다. 강을 밝혀 헤엄쳐 오는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살아남기 위한 진주민의 지혜에 후손들이 축제로 화답한다. 우리의 자부심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사색과 명상의 시간

Tripitaka Koreana Festival



‘미래를 여는 화합, 세계로 나아가는 만남’, 지난 9월말 합천에서 열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슬로건이 진한 여운으로 남는다. 만남의 의미 보다 화합이 갖는 의미가 더 가슴에 와닿기 때문이 아닐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축사도 인상적이다. “대장경이 담고 있는 평화와 신앙의 메시지는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지 못한 인류에게 나아갈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족 문화는 물론 인류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대장경축전을 통해 더욱 빛나고 있다.”

곰씹어 봐도 울림이 있다. 대장경축전은 어느 축제와 달리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경건함이 있다. 관람객의 집중도도 매우 높다. 축제가 열린 해인사와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 소리길 등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물이다.

해인사 산내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백련암도 일반에 공개됐다. 성철 스님이 말년을 보냈고 일제강점기 서경주와 김동리도 머물며 불교사상을 공부하고 문학수업을 한 곳이다. 해인사는 축제를 위해 무려 1,200년 만에 처음으로 해인사 마애불을 선보였다. 이번 축제의 백미다. 아직도 해인사의 불경 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다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축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다.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동의보감의 감동 훈훈한 마무리

World Traditional Medicine EXPO in Sancheong, KOREA 2013



지난 9월에 열린 2013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는 여러가지면에서 되새겨 볼만한 축제다. 가장 큰 의미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동의보감>이 무엇인가. 병으로 고통 받는 백성을 위해 쓰여진 의서가 아닌가. 허준은 선조가 내려준 의학서 500여 권을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자신의 임상 경험을 더했다. 중국의 의학이 아닌 우리 풍토와 체질에 맞는 의학서 <동의보감>이 돋보이는 이유다. 엑스포가 열린 산청의 입지 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지리산 천왕봉이 품은 산청은 예부터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다. 토종약초 1천여 종이 자생하는 약초 재배의 최적지로 물 좋고 벌이 좋다. 좋은 터에는 좋은 기가 나오는 법. 덩으로 전해진 선물이다.

엑스포의 내용도 훌륭했다. 지루한 볼거리에서 벗어나 체험으로 느낌을 주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내 몸을 알 수 있는 기 체험장과 약초 달인 물로 즐기는 족욕 등이 큰 즐거움으로 꼽힌다. 축제가 끝난 자리도 아름답다. 엑스포 조직위는 지난 12월 중순 산청의 복지시설인 성심인애원을 찾아 15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관람객들이 소원을 빌며 기 바위와 복석정 등에 빼곡히 쌓은 동전이 성금이 된 것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마무리다.



연말에 더 파스해진

문화나눔의 시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 저마다 누군가와 만나고 송년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늘 이맘때면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 이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낸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한해가 저무는 12월, 창원성심원과 김해한마음학원을 찾아가 송년음악회를 열어 감동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먼저, 14일 음악보따리 둘러메고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창원 성심원으로 향했다. 창원의 외곽, 구부러진 길을 돌고 돌아 도착한 성심원에는 이미 어르신들과 직원, 후원자 등 200여 명이 모여앉아 설레는 표정으로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남챔버소사이어티가 ‘여인의 향기 OST’ 등 편안한 곡들을 연주하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바리톤 이종훈과 소프라노 이미영의 아름다운 우리가곡, 세종국악양상불의 신명나는 풍물공연, 성심원 합창단과 창원교사합창단의 합창공연 등 풍성한 공연들이 이어져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 특히 성심원 직원들로 구성된 성심원 합창단은 그동안 가족같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해왔고, 이날 멋진 화음과 감쪽한 울동을 선보여 큰 감동을 주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우리지역 아동들이 방과 후 악기를 배우며 연주자의 꿈을 키워온 꿈의 오케스트라와 경남챔버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캐롤 협연이었다. 관객들은 아이들의 조금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평소 이 같은 음악회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어르신들은 감미로운 클래식 연주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가, 흥겨운 무대에는 연신 박수로 호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 공연은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24일, 김해 한마음학원에서 이루어졌다. 한마음 가족 및 직원들이 모두 자리한 가운데 한국인의 한과 멋을 담은 전통춤을 비롯하여 흥겨운 국악가락으로 구성된 판소리와 민요, 신나는 리듬에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

쳐졌다. 공연 주관에 맡은 김순애 우리춤연구회의 ‘허튼수건춤’으로 음악회가 시작되어 ‘추야월’, ‘검무’, ‘굿거리’ 등 우아하고 멋스러운 전통춤들이 이어졌고, 판소리 ‘춘향가’, 경기민요 ‘창부타령’ 등 신명나는 국악공연들과 산타복장을 한 무용수들의 라인댄스와 젊은이들의 힙합댄스가 펼쳐져 한마음 가족들에게 흥을 북돋아주었다.

한마음학원 관계자는 “평소 한마음 가족들의 문화공연 관람기회가 흔치 않아 이번 공연이 특히 반가웠다”며 “연말에 더욱 외로운 우리 한마음 가족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이 음악회가 따스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단법인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매년 지역의 복지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을 통해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진주복지원과 창녕나자렛요양센터를, 하반기에 경남사회종합복지관을 찾아가 문화공연을 펼쳤으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지역으로 찾아가 소외이웃들에게 문화예술로 웃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도 보고 양초도 만들고~

해피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의 어느 날, 창원 성산아트홀 앞에 STX조선해양 버스가 서자 아이들이 왁자지껄 내렸다. “오늘 무슨 공연 보는 거예요?” 천진한 얼굴로 물어보는 아이들. 오늘 경남메세나협의회와 STX조선해양이 전해지역 맞벌이 및 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하고자 함께 준비한 ‘해피해피 크리스마스’ 행사에 초청되어 이 자리에 모였다.

첫번째 선물은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는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관람.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호프만의 동화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춤과 신나는 노래를 곁들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이다. 동화 같은 무대와 화려한 의상들,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로 공연 내내 아이들은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공연 관람 후에도 뮤지컬의 여운이

남은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다시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다. 쇠소리 울리고 딱딱할 것 같았던 조선소에 흥겨운 캐롤 음악이 울려 퍼지며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소의 거대한 배들을 견학한 후, 마린센터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센터에서 이날 특별한 손님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돈가스, 감자튀김, 치킨, 과일 등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았다. 식당은 어느새 맛있게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재잘대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기대하던 ‘크리스마스 양초 만들기’ 시간이 되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크리스마스 양초를 만드는 체험도 물론 좋지만, 완성된 양초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

대산미술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정성들여 알록달록한 양초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양초를 선물할 친구와 가족 생각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날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던 열 살 은지는 양초를 예쁘게 만들어 할머니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해맑게 웃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창 밖으로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하루종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즐겁게 놀았던 아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이 남아있었다! 여러 가지 과자와 학용품을 담아 아기자기하게 포장한 선물가방을 손손에 쥐어주자 아이들의 아쉬워하던 얼굴은 금세 커다란 미소로 바뀌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매년 어린이들에게 공연 관람 티켓을 제공하는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이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신화철강(주) / ‘10월의 마지막 밤에’ 음악회

클래식으로 문화예술 사랑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CWNU원드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창원시 팔용동 밤 하늘을 울렸다. 지난 10월 31일 신화철강(주)(대표이사 정현숙)이 마련한 작은 음악회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 클래식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었다.

이번 음악회는 신화철강이 매년 실시하는 문화행사 중 하나로 임직원과 가족이 회사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임직원의 땀이 묻어 있는 일터에서 가족과 문화예술, 그리고 가을의 정취가 함께 어우러진 만남이었다.

이번 행사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임직원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각 파트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

정에서 직원들의 참여의식이 돋보였고, 서로 협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류팀은 현장에 있는 H-빔과 철판, 이연BT비계를 이용해서 멋진 무대를 설치하였고 운송팀은 철판을 옮기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

무대장식을 맡은 여직원들과 투박한 손놀림으로 풍선을 붙이던 남자 직원들 모두 음악회를 위해 하나가 되었다. 정현숙 대표는 만찬 음식을 직접 조달하며 셋팅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결연단체인 트루베르챔버 오케스트라는 현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선사했고 직원 가족의 가을 시 낭송과 직원 가족에 도서 전달, 신화철강 홍보 동영상 감상 등이 이어졌다.

신화철강은 지난 2009년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문화경영의 첫 발을 내디뎠다. 정현숙 대표의 각별한 관심과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문화경영활성화사업 우수기업과 2012경남메세나대상 문화경영상을 수상하였다. 직원들은 이제 누구보다 못지않은 문화예술 애호가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번 음악회를 치르면서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까지 얻었다.

신화철강은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해 온 문화경영의 기본 틀 위에 회사와 직원, 가족은 물론 주위의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고 더불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지원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옷칠로 새로 태어난 미술, 옷칠 회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은행 본점 KNB아트갤러리에서 열린 ‘한국옷칠회화展(전)’에 수백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전시회는 박영빈 KNB 아트갤러리 관장(경남은행장)과 임경숙 경남도의원, 고영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임갑출 통영시 안전행정국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옷칠 회화는 나전과 채화 재료로 제작되는 새로운 예술 분야이다. 수천년 동안 전해져 오는 옷칠기법을 통영옷칠미술관의 노력으로 회화에 적용하였다. 박영빈 관장은 “천년을 이어온 옷칠 회화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작업과정을 거쳐 무지개 빛 자개 특유의 깊은 색감으로 아름다움과 독창성 면에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세계 속의 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김성수 통영옷칠미술관장과 서유승·최은란·하정선·김한내·서수향·김미옥·이진숙 등 통영옷칠미술관 입주 작가 7명과 중국 출신 작가 3명의 옷칠 회화 작품 28점으로 꾸며졌다. 김성수 관장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경남도립미술관·부산시립미술관·영국 대영박물관도 소장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경남은행 / 한국옷칠회화전

자연의 색 예술을 품다



(주)네오씨티알 / 극단 <미소> 연극 '꽃신'

문화의 불모지 창녕에 내린 단비



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분, 언제나 부르고 싶은 이름, 이 시대의 엄마를 다룬 연극 '꽃신'이 우포늪의 고장 창녕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15일 창녕문화예술회관에는 '창녕 군민과 네오씨티알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이날 네오씨티알대표 백낙림 임직원과 창녕 군민들은 극단 미소(대표 윤지원)의 연극 '꽃신'을 관람하였다.

'꽃신'은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 순덕과 그 곁을 지키는 딸 옥련의 이야기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점점 딸에게 짐으로 변해가면서 겪게 되는 모녀의 미묘한 감정변화를 절절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요즘처럼 삭막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엄마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네오씨티알 생산관리팀 정순철 차장은 "연극 내용이 현실적이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모셔본 분들이 많이 우셨던 것 같다"며 "남자들은 직장 생활로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아내의 고통과 수고를 잘 모르는데, 연극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극은 창녕에 연고를 둔 네오씨티알의 메세나 경영으로 이뤄졌다. 센트럴그룹 계열사로 자동차용 조향·현가 부품을 생산하

여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2001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대에 조성된 자동차부품 전문화 단지 '영산 오토밸리'에 설립되었다.

올해 극단 미소와 메세나 결연을 맺었고 이번 연극이 첫 작품이다. 네오씨티알 관계자는 "창녕은 대도시와 달리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며 "메세나 경영이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창원 등 대도시에서 활동해오던 극단 미소도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연극을 올릴 수 있어 큰 보람을 얻었다고 한다. 네오씨티알과 극단 미소가 메마른 창녕의 문화예술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주)중앙금속 / 연극 '러브 액츄얼리'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지난 12월 14일 창원시 중성동 창동시민극장에는 (주)중앙금속(대표이사 정영건) 임직원과 가족의 연극 관람이 있었다. 많은 인기로 뒤편하는 <러브 액츄얼리>다. 연극은 한 연인이 100일, 1,000일, 10년을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 점 하나만 짚어봐. 이 점 뻥 나머지만큼 사랑해." 만난 지 100일 되는 철민과 다슬. 공원에서 다슬은 철민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럼 이 점은 누굴까?" 세상에 돌박에 없는 듯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랑을 속삭이는 이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다. 시간이 흘러 1,000일 되는 날. 둘의 모습은 100일 때와 사뭇 다르다. 철민과 다슬은 사소한 일로 비๊까대기 시작했고 10년이 흐른 후에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연극은 사랑할 때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때때로 다가오는 다툼과 화해 후의 어색함을 관객에게 전한다. 하지만 무거움은 줄었다. 라디오에서 사연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꾸몄고 DJ의 재기발랄한 입담으로 웃음까지 안긴다.

소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관객 참여 공연도 이뤄졌다. 극중 인물로 갑자기 지목된 한 관객은 무뚝뚝한 자신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부인과 가족에게 영상편지를 전하며 사랑을 표현하였다.

중앙금속 임직원과 가족은 이 한편의 연극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함께 연극을 보며 사랑과 인생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만큼 멋진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메세나가 추구하는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중앙금속은 지난 2002년 설립, 창원시 웅남동에 있는 특수강 제조업체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앞선 기술력과 끊임없는 기술발전을 이루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철강금속 업체이다.

이처럼 기술력에 대한 투자 외에도 중앙금속 정영건 대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직원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중앙금속은 앞으로 꾸준한 메세나 경영으로 기업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뤄갈 계획이다.





(주)한국자연환경 / 다별청소년관악단 송년 음악회

산골 청소년 관악단 꿈을 연주하다

지난 11월 23일 창원시 보훈회관 리셉션홀에는 이른 송년 음악회가 열렸다. 지리산 자락 깊은 골 함양의 다별청소년관악단 연주회다. 300여 명이 넘는 관객들은 앓된 청소년들의 연주를 숨죽이고 지켜 보았다.

금관양상블팀이 '영광의 탈출' 연주를 마칠 때는 모든 관객이 일어서 박수를 치며 감동을 전했다. 이날 음악회는 '한국자연환경 사원 및 고객의 날' 행사로 마련되었다. 한국자연환경(대표 조현준)의 메세나 경영이다. 조현준 대표는 함양 문화예술의 자부심이 된 다별청소년관악단을 소개하며, 앞으로 더 많은 후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자연환경과 다별청소년관악단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자연환경은 경남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낙후된 함양에 문화의 씨를 뿌리고 싶은 바람이 있었고 다별청소년관악단은 연습과 공연을 위해 기업의 후원이 필요했다. 결연을 맺은 한국자연환경과 다별청소년관악단은 전용 연습실부터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국자연환경은 설계를 비롯한 모든 신축 과정을 적극 지원하였다.

지난 9월 완공된 연습실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규모란 평을 받고 있다. 다별청소년관악단은 현재 17회의 정기공연을 비롯 각종 공연을 하였다. 지난해는 유럽 3개국 4개 공연장을 순회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

진주시 상평동에 위치한 한국자연환경은 지난 2006년 친환경소재 개발을 위해 창원대학교 벤처센터에서 출범하였다. 지난 2008년에는 GPS시스템을 활용한 지장물 전문조사 및 처리업체로 사업 목적을 변경, 진주 분점과 함양 등 3개 지사,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원서비스사업으로 토지개발 전문컨설팅 및 토목건설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토지개발사업 중 신규 사업인 지장물 조사 및 묘지 처리는 경남권 관급수주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토지개발 컨설팅사업 영역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주)무학 /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은 경남메세나협의회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인연맺은 CWNU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단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의식향기와 더불어 문화공연 체험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자,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과 CWNU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직접 방문해 작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음악회는 창원, 부산, 경남 산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심신이 지쳐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지역 내 병원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는 시립창원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어르

신들을 위한 따뜻한 음악연주회를 개최였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보호자들에게는 병간호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대중에게 익숙한 클래식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가요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 울산·경남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수근 본부장은, CWNU 윈드 오케스트라의 단장직을 겸직함으로써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시 단원들과 함께 소중한 음악공연을 선물하고 있다.

(주)무학은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외에도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에 5억원을 통크게 기부하고, "좋은세상 만들기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975편의 작품 중 74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사회와 문화예술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3 경남메세나대회 문화예술영재상 수상자

영재들의 삼중주

Czardas & Libertango

글 진강숙 / 사진 경남메세나협의회

2013년 경남메세나협의회 메세나 대회는 문화예술영재상 수상자들의 연주로 가득 찼다. 학교생활을 하는 지역이 달라 서로의 음률을 맞출 시간이 없었다. 공연 전 두 시간의 짧은 연습이었지만 음악 영재라는 공통점을 가진 소녀들은 예술로 통하며 금방 친해졌고, 서로를 믿고 따라왔다.

19세기 초에 생겨난 헝가리의 민속무곡 Czardas(차르다시) _ Vittorio Monti (1868-1922, Italy)와 아르헨티나 탱고를 누에보탱고로 승화, 클래식음악으로 승화시킨 20세기 후반의 Libertango(리베로탱고) _ A.Piazzolla(1921-1992, Argentina)를 연주한 이가은(첼로, 서울예술고), 성서영(바이올린, 부산예술중), 유채연(플루트, 창원 호계초) 세 영재의 무대는 2013경남메세나 대회를 한껏 풍요롭게 했다.



첼로는 나의 힘, 나의 행복

이가은 /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묵직하면서 우아한 첼로의 음색에 빠진 소녀

첼로를 좋아하지 않았던 한 작곡가는 첼로에 대한 이런 평을 남긴다. “고역에서는 뽐뽐대고 저역에서는 으르렁댄다. 중역은 좀 들어줄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주곡이라 불리는 첼로 협주곡을 남긴 안토닌 드보르작(Antonin Dvorak)의 이야기다. 뽐뽐대고 으르렁거리게만 느껴지던 첼로의 음색이 어느 순간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이가은 학생도 마찬가지다. 남양초등학교 재학시절 음악을 전공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배운 첼로, 사람의 소리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첼로를 안고 연습을 거듭할 때마다 묵직하고 우아하게 다가오는 다채로운 음색에 빠졌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첼로는 가은학생의 분신이 되었고 타고난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갔다.

화려한 수상경력에 감춰진 노력

평일 5시간, 휴일 8시간의 평소 연습량. 실기시험이 있을 때면 연습시간은 더 늘어난다. 이원문화센터 영재오디션에 합격하여 독주회를 열고, 서울예고 입학 후 LG에서 주최한 사랑의 음악학교 오디션 합격, 오사카 국제음악콩쿨 현악부문 2등, 신예음악콩쿨 실내악 1등 등의 화려한 수상경력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음악을 느끼고 즐기며 연주하지만 모든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다. 잠도 줄어가며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흡족하지 않을 때... 가은학생이 속상함을 푸는 방법은 자는 것이다. 워낙 온순한 성격이기에 그냥 자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평소처럼 다시 활을 잡는다. 입시가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가 되어 고향 분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며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가은양의 첼로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다.

제2의 정경화를 꿈꾸는 당찬 소녀

성서영 / 부산예술중학교 2학년

당찬 연습벌레

선천적으로 타고난 음악성을 바탕으로 바이올린 외에 피아노와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교육을 받으며 음악적 소양을 넓혀온 성서영 학생은 2009년 창원 시청소년교향악단에 입단, 악장을 역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주자의 길에 들어섰다. 시험이 끝난 날이면 또래 친구들처럼 재잘거리며 수다 떨고 싶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순간의 수다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곡에 심취해 연주하거나 오빠에게 부탁해 캐논변주곡, 탱고 곡들을 듀엣으로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자주 끼워 색이 변한 목과 굳은살 박인 손... 부모의 눈엔 아픔이지만 서영 학생에게 당연한 훈련의 결과이자 자랑스런 훈장이다.

재능을 기부하는 따뜻한 음악가!

매주 금요일이면 레슨을 위해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강단진 성서영 학생은 성공한 음악가가 아닌, 따뜻한 음악가가 되려한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오지 마을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어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요양원을 찾아가서 연주를 하고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을 공유할 때, 장애인 연주자들의 반주를 맡으며 협연하며 행복을 느낀다는 서영 학생은 그간 정기연주회, 청소년음악제, 자선음악회 등 수많은 음악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발휘하며 재능기부를 통해 진정한 음악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조금 작은 신발과 첫 협연이라는 긴장감으로 연주를 시작할 때 다리에 쥐가 났다. 어떻게든 연주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리듬을 타는 척 몸을 흔들며 신발을 벗었다. 그 후로는 협연 때마다 조금은 여유 있는 신을 신고 발마사지를 한 후 무대에 서는 습관이 생겼으며 웃는 얼굴이 사랑스럽다. 따뜻한 음악가를 넘어 모든 악기의 화합을 이끄는 따뜻한 지휘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도 우린 아마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천재 플루티스트

유채연 / 창원호계초등학교 6학년

나를 이끈 Czardas

어머니께서 취미로 배우던 플루트의 소리를 듣고 졸라서 플루트를 배울 때가 11살이다. 며칠을 연습해서 처음 플루트의 소리를 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유채연 학생은 입문 1년 만에 남다른 천재성을 보였다. 긴 협주곡의 암보 능력과 음감이 뛰어나고 음악적 표현력도 탁월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늦게 시작했는데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역 및 전국 콩쿨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2014년 2월에는 전국의 큰 콩쿨의 1등만 설 수 있는 ‘젊은이의 음악제’에서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신의 입과 연결되어 마치 몸의 일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더 매력을 느꼈다는 채연 학생은 최나경 플루티스트가 편곡하고 연주한 헝가리 민속 무곡 Czardas(차르다시)를 듣고 연주하며 플루트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어린 나이이지만 손이 굳을까봐 수확여행도 포기하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쓰인 부모님은 “전공하지 않고 즐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권한 적도 있다. 하지만 플루트를 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채연 학생의 대답에 그 권유가 무색해졌을 만큼 채연 학생의 플루트 사랑은 대단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또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스스로를 컨트롤하며 미래를 위해 지금 노력하는 것쯤은 참을 수 있다 한다. 최나경 플루티스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플루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채연 학생. 평소 장난 많고 명랑한 또래 어린이지만 플루트를 대할 때만큼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는 기대주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연주의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 ‘미’ 사이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로 구분된다고 했다. 2013메세나대회 날, 기자가 본 영재상 수상자들의 앙상블 연주는 이미 음과 음 사이, 그 첼나의 공간을 고민하는 프로의 그것에 닿아있었다.

CULTURE CEO

중국의 모택동(毛澤東)은 세 번 읽고 네 번 되새겨본다는 삼복사온(三復四溫)의 독서로 지도자의 경륜을 쌓았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분인 세종대왕은 백독백습(百讀百習)을 몸소 실천했다. 막힘없이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달변가라 칭한다. 그런데 그 달변 속에 삶의 정곡을 짚어주는 박학(博學)과 식견(識見)이 함께한다면 가히 ‘현자(賢者)’라 부를만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



지역 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광득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광주

글 진강숙 / 사진 구제영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로젝트의 전 부분을 완벽히 추진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 광득종합건설(주) 최광주 대표는 2013년 3개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메세나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한 결연지원으로 극단가배(대표 최성봉), 경남미술협회(회장 김상문), 미르피아아이온앙상블(대표 백현경)을 후원하는 최광주 대표이사 메세나 활동은 사실,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문화예술인보다 문화예술을 더 잘 아는 기업인

‘공공 건설 공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을 받는다. 그렇게 번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기에 나눠야 한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문화예술분야에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최광주 대표. 그는 20년 전부터 극단 마산으로 대표되던 연극협회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경남미술협회도 오랜 후원을 이어오고 있었다. 외에도 경남에서 치러진 세계연극제와 여류작가회, 창원미협, 마산여성합창단 50주년 지원 등 개인 차원의 지원이 경남메세나협회의 회를 만나 매칭펀드를 통한 지원으로 형식을 바꾼 것이다. 최광주 대표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現경남미술협회 김상문 회장과 40년 지기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화가들과 만나고 연극인들과 만나고 음악인들과 만나다보니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연구하고 연습하는 창작활동이 예술인의 기본이자 본분이다. 다른 것은 내려놓고 창작활동에만 매진하라. 훌륭한 예술인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해야 한다.”는 최광주 대표의 신념은 밀양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르피아아이온앙상블’ 백현경 대표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메세나 지원이후 밀양 아리랑을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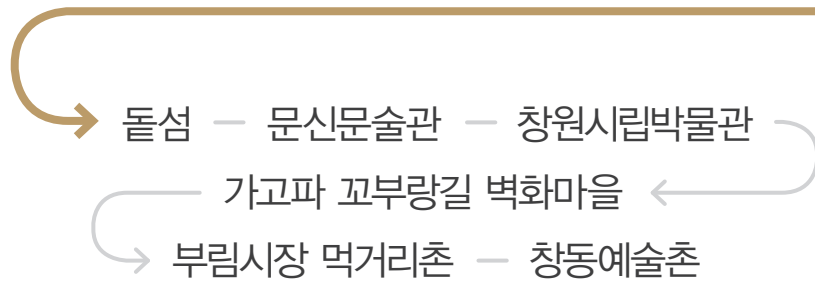
편곡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합천대장경세계축전과 산청엑스포 초청을 받았다. 그러한 활동으로 ‘미르피아아이온앙상블’은 도민예술단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올해 전국 6개 도시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명세를 탔던 ‘아리랑플래쉬몹’ 또한 그 일환이다.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그들에게 조언할 만큼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해박한 최광주 대표는 결연단체의 먼 미래까지 내다본다.

아리랑 환타지

공학자가 아닌 문화예술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최광주 대표는 요즘 꿈을 꾀다. 밀양 아리랑이 현대적 감각과 더해져 아리랑 환타지가 되고 열 번 스무 번의 공연이 연습무대가 되어 한류로 뻗어가는 꿈. 그리고 장학재단. 이곳을 거친 이들이 훗날, 위대하게 이름을 떨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해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던지는 그의 시선에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밝은 미래가 빛나고 있었다.



창원시 문화관광 Golden Route



마산을 수놓은 푸른 남쪽 바다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 난다. 돌섬으로부터 문신미술관과 창원시립박물관,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부림시장 먹거리촌, 창동예술촌은 창원시와 경남은행의 노력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마산의 화려한 부활이다.

글 신병철 (경남은행 부장·경남메세나협의회 홍보실장) / 사진 홍민정



복을 주는 황금돼지섬

01. 돌섬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국민 가곡 ‘가고파’의 노래말을 쓴 이은상의 향수가 어린 마산 앞 바다. 그 한 가운데 자리한 돌섬은 오랜 세월 마산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가슴이었다.

돌섬이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창원시가 연간 3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돌섬은 창원시 소유로 면적은 112,000㎡(약 34,000평)이며 배로 약 1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동물원과 서커스 공연을 볼 수 있는 국내최초의 해상유원지로, 가을이면 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려 연간 50만 명이 찾았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큰 상처를 입고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최근 창원시에 의해 ‘복을 주는 황금 돼지섬’으로 새로 조성되어 서서히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돌섬은 풍수지리적으로 무학산과 더불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기가 센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부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도 받는다.

섬 길은 걷기에 아주 좋다. 1시간 정도 걸리는 파도소리 돌레길을 한 바퀴 돌면 1년 동안 허리와 다리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한다. 반달동 산을 거쳐 정상 가고파 이은상 기념탑까지 가는 숲속 산책길은 30여분 정도 걸린다. 기념탑에 오르면 남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동쪽 팔각정으로 내려오면 마창대교와 막개도 등대를 볼 수 있다.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해진다. 2012년 창원 조각 비엔날레 때 설치한 작품 20여 점도 감상할 수 있다.

후문 선착장에는 크루즈 요트와 카약, 카누, 래프팅을 할 수 있는 해양요트 스쿨도 있다. 선착장 앞 벽천 분수에 있는 황금돼지상은 황금돼지를 가슴에 품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포토존이다. 행복유람선을 타면 마창대교와 막개도 등대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기념사진도 찍고 거가대교와 대통령별장이 있는 저도를 다녀올 수 있다.



대청과 균형을 담은 예술

02. 문신미술관

창원시 추산동, 바다가 바라보이는 높다란 언덕에 자리한 문신미술관이 ‘가고파 꼬부랑길’과 연결되면서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문신미술관은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이 직접 세운 건물로 유명하다.

문신은 자연과 생명의 작가, 대청과 균형의 미학을 실천하고 구현한 조소에 술가란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화가로 출발하였다. 16세에 일본 동경 미술학교에 입학, 유화를 공부했고 광복과 함께 귀국해서는 10여 회의 유화작품전을 개최한 화가였다. 1961년 예술의 고장 파리로 떠나 추상조각으로 방향을 전환,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화려한 파리 생활을 뒤로 하고 귀국을 결심한다. 예술 혼을 불어넣었던 마산과 푸른 바다를 잊을 수가 없었다.

1980년 유년 시절을 보낸 마산에 터를 잡고 살았다. 고향에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무려 15년의 공사를 거쳐 문신미술관은 문을 열게 되었다. 2개의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에 있는 약 3,900여 점의 작품에는 그의 불같은 열정과 번뜩이는 창의가 수두룩 하다. 문신은 미술관 개관 1년 후 숨을 거뒀다.

그는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2003년 문신미술관은 창원시에 기증되어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제 ‘가고파 꼬부랑길’을 걸으면 그의 작품과 예술혼이 곳곳에 남아 있는 문신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제2의 동피랑

03.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은 경남은행의 문화사업으로 태동하였다. 지역 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박영빈 행장이 진두 지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남은행과 창원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제2의 동피랑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찾았다. 결국 창원시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성호동 꼬부랑길을 벽화마을로 꾸미기로 결정하였다. 주변 문화공간과의 연계도 훌륭하다. 문신미술관과 시립박물관, 부림시장 먹거리 골목, 창동 예술촌이 이어진다.

새로 조성한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의 주제는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곡

‘가고파’의 노래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메인 벽화는 왼쪽부터 마산과 창원, 진해를 잇는 봉암대교와 마산어시장, 그리고 무학산을 밑그림으로 하고 그 위에 창원의 9경을 담았다. 각 골목마다 주제를 선정, 특색을 살렸다. 세계적인 팝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의 ‘금빛 마릴린 먼로’를 그린 벽화도 만날 수 있다.

6.25 떡볶이로 유명한

04. 부림시장 먹거리촌

먹거리도 관광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부림시장 먹거리촌의 대표 메뉴는 6.25 떡볶이. 노점 좌판에서 냄비나 번철 하나 달랑 걸어놓고 팔 수 있는 서민들의 음식이다. 매콤하고 뜨거운 국물이 많은 6.25 떡볶이는 화분 받침대를 받쳐 먹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길거리 음식은 골목 한 칸에 쪼그리고 앉아 먹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흑백 TV가 유행하던 시절, 이웃 주민들이 TV가 있는 집에 모여 연속극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던 그때의 아련한 추억이 남아 있다.

부림시장 먹거리촌은 맛있는 먹거리 뿐 아니라 옛 이야기가 있다. 부림시장은 25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조선시대에 조세로 모은 현물을 모아 보관하던 조창(漕倉)이 있어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경공업 발전계획에 따라 의류 산업이 크게 번창하여 많은 사람의 용래가 빈번하던 지역이다. 시장 옆 옛 시민극장 일대에는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이 깃들여 있어 아직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마산의 새로운 문화공간

05. 창동 예술촌

마산이 경남의 심장, 전국 7대 도시로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다. 창동은 마산의 중심지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인구이동에 따른 상권의 분산으로 빈 점포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창동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시는 도심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재생 계획을 추진하며 마산이 가진 특성을 주목하였다.

마산은 시인 천상병과 작사가 반야월, 이은상, 조각가 문신 등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지역이다. 시는 마산예술촌적과 문신예술, 에꼴드 창

동 등 3개 테마로 골목길 빈 점포 70개를 활용해 작가들이 입주하여 작품 활동을 하도록 돕기로 하였다.

아트전시장과 다양한 갤러리, 야외전시장, 골목벽화, 예쁜 카페 공방 등 지역민의 정서적 힐링은 물론이고, 국내외 예술인들과도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동안 경쟁이 없는 시장, 즉 블루오션(blue ocean)이 유행이더니 요즘은 퍼플오션(purple ocean)이다. 기존 제품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덧 씌워 일시 보라색 틈새를 공략하는 것을 지칭한다. 맞는 말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듯 세상 어디에 블루오션이 있거나 할까?

변화전문가 세스 고딘이 2003년 펴낸 자기계발서 <보라빛 소가 온다(purple cow)>도 같은 맥락의 조언서다. 그는 정글(빨강)과 힐링(파랑)의 중간지대 ‘보라빛 처세’를 들고 나온다. 예컨대 누군가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조언에 세스 고딘은 ‘칭찬에 춤추는 고래가 되지 마라’ 하고 ‘속도와 카리스마 경영론’에는 ‘그런 리더에게 조종당하지 마라’고 주문하는 식이다.

어디서 그런 역발상과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린다. 한때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떠올랐다 2011년 작고한 애플 창업자 말이다. 참 너무 쉽게 잊혀진다는 싫어 아쉽지만, 여전히 그에게겐 경영자 보다는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린다. 리드대에서 철학을 전공하다 진작 학업을 접고 대신 캘리그래피(calligraphy 손글씨) 청강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의 시리즈 제품에 얹힌 사연을 여기서 다 말할 여지는 없는 듯하다. 그의 신제품 발표장은 하나의 콘서트였고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문에서 인용했던 ‘stay hungry, stay foolish’

는 불후의 명언으로 자리했다. 여러 번역이 있지만 ‘늘 갈망하라, 때론 바보짓을 하라!’에 필이 꽃힌다. 그렇게 잡스는 컬처(culture 문화)가 아니라 컬트(cult 숭배)가 돼 갔다.

애플의 반대편 한축을 형성하는 구글은 또 어떤가?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전문경영인 에릭 슈미트보다는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예술로 통한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수많은 성공요소를 말하지만 개중에서도 ‘20% rule’과 ‘fail well(멋진 실패)’이 돋보인다.

하루 일과 중 20%를 회사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은 바로 구글식 창의의 원천이다.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직원들의 고민은 결국 상상력이 됐다. 그리고 예술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멋진 실패’를 경영관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엘 시스템마(El Sistema).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카라카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으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단은 2004년 다큐멘터리 <연주하고 싸워라>, 2008년 영화 <엘 시스템마>로 널리 알려져 지금은 190여개 센터,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는 소리없는 사회교육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재미 한국

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가 지난 11월 28일 극장 개봉돼 눈길을 끌었다.

자칫 낙오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범죄의 소굴로 흘러들 뻔했던 불우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사회변혁의 중심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가? 그들의 음악적 상상력과 창의력은 비단 무대에 서뿐 아니라 기업현장에서도 살아 꿈틀거릴 게 분명하니까.

우리네 세상은 온통 빨강·노랑·파랑 원색 일변도다. 그래서 세상은 늘 충돌·갈등하고 기업현장에서는 창의보다는 익숙한 관행이 만연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보라색을 그냥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렬한 원색에 예술적 감수성을 입혀야만 간색(間色)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메세나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것 해서 뭐해?”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은 당연하다. 경영이 어려우면 바로 외상을 입는 것 역시 메세나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말하고 이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아니라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를 새로 논하는 시대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자꾸만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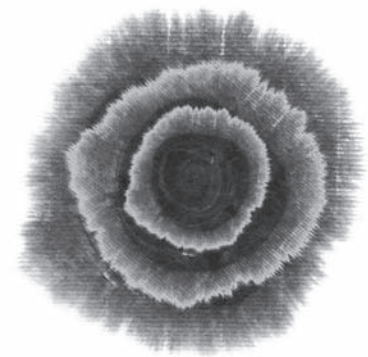
기업경영과 메세나는 갑을관계가 아닌 진정한 상생관계 혹은 공유가치로 발전해야 한다. 진정한 퍼플 오션도 거기서 생겨나가는 것은 물론이다.

Purple

보 랫 빛 세 상 그 리 기

글 허의도 / 칼럼니스트(전 중앙일보 문화부장)

Ocean



마음을 두드리는 손 글씨

캘리그래피

글 김민정 캘리그래피디자인연구소

사진 홍민정

감성 손 글씨, 캘리그래피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파스함을 지니고 있다.
외로운 영혼을 달래주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한다.
문자의 기능을 넘어 예술로 진화한 캘리그래피를 엿본다.

정형에서의 탈피와 자연스런 불규칙성, 캘리그래피의 특징이다. 여기에 희소성을 더하니 가치는 절로 높아진다. 캘리그래피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현대에 와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직선과 화색이 주를 이루는 도시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불규칙성으로 틈 수 밖에 없다. 일관된 디자인은 쉽게 피로를 느끼지만 감성을 담은 캘리그래피는 편안함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슬람의 캘리그래피 역시 고혹적이다.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시에 따라 인물과 동물을 형상화하지 못했다. 대안 예술로 신의 목소리를 기록한 쿠란을 예술적으로 쓰는 캘리그래피를 발전시켰다.

이슬람 캘리그래피는 가장 숭고한 예술 장르로 아라베스크와 기하학 문양 등과 함께 어우러져 이슬람 예술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준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 된다. 아름다운이란 뜻의 'cal'와 화풍·서풍·서법·기록의 뜻을 가진 'graphy'의 합성어다. '아름다운 서체' 또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아름답게 쓴 손글씨', '감성 손글씨'로 불린다. 펜과 같은 필기도구는 일정한 굵기와 갈필(거친 획), 번짐 등 다양한 감정 표현을 내기 어렵다. 붓은 너비나 크기에 따라, 만든 재료와 만든 이의 제작

기법에 따라 부드럽고 거친 표현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캘리그래피의 기본 필기도구로 많이 사용한다. 조선 후기의 문인 김정희 선생이 붓을 이용해 만든 추사체가 좋은 예다. 캘리그래피는 붓을 기본으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봉, 수세미, 칫솔, 빗자루, 종이, 볼펜, 나뭇가지, 화장품솔, 손 등)를 이용한다. 화선지와 다양한 종이에 작가가 의도한 글귀에 감성을 넣어 표현하면 된다.

감성 캘리그래피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글꼴 원리를 통해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익힌 후, 가장 기본적인 감성표현법 4가지인 조형의 원리(크기조절), 초·중·종성 강조법(굵기조절), 위치·방향조절법, 글그림 화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아름다운 이슬람
동행

서법에 맞춰 쓰는 서예와 달리 본인만의 서체에 자유감성을 담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으며 액자와 머그컵, 달력, 도장, 에코백, 엽서, 명함, 티셔츠 등 일상 생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감성 손글씨와 디지털 컴퓨터의 접목으로 모든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C와 B, SI(Sign identity, 간판 이미지 통합) 로고, 상품패키지는 물론 음반과 도서, 영화, 신문, 잡지, 사보, 각종 전시, 공연, 포스터, 카탈로그, 행사 타이틀에 두루 쓰이고 있다.

예술 분야에도 각광 받고 있다. 천연염색과 나무공예, 냅킨아트, 기타 인테리어 소품 등에도 캘리그래피를 엿볼 수 있다. 자격취득 후 대학 관련학과 입학, 인쇄·광고회사 취업, 방과후 학교, 캘리스쿨·대학교·문화센터·기업체 특강 등 교육강사, 관련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한국화가 김 경 현 글 경남메세나협의회 / 사진 홍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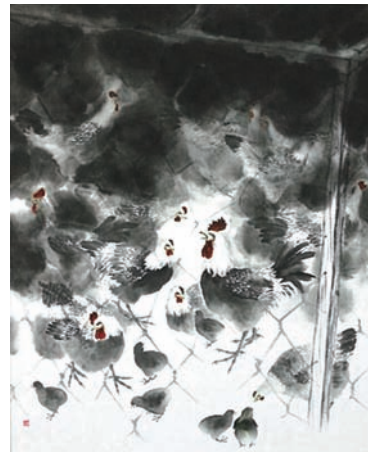
40년 만에 경남에서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지난 9월, 한국화 ‘그 어느날의 대화’로 구상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경현 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닭과 병아리, 소나무를 소재로 향토적인 정감을 담은 그림들로 가득한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전시회장을 찾았다.

전시장에는 그를 대표하는 그림들이 펼쳐져있다. 고요한 숲에 들어온 것 같다. 그림과 작가는 서로 공명하여 닮아가는 것일까. 김경현 작가의 선한 눈망울과 나지막한 말씨에서 속세를 벗어나 오랜 시간 수련을 쌓아온 듯한 섬세하고 깊은 내공이 느껴진다.

창녕 출신의 김경현 작가는 산자락 아래 낙동강변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에서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잔잔한 여유와 평화로운 정서가 배어있다. 이미 수상전부터 ‘닭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졌고, 2009년부터는 소나무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다. 뽀뽀한 광목천에 물을 여러 번 먹여 부드럽게 말린 후, 전통적인 수묵기법으로 닭과 병아리, 소나무, 햇살 좋은 시골마당을 그린다. 닭과 병아리는 작가에게 일상적 소재가 아닌 평화로웠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그 무엇이다. 향토적 소재에 따스한 정감을 담아 독자적인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왔다.

이번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닭과 병아리가 평화롭게 노는 모습을 담은 ‘그 어느날의 대화’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출품한 826점의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남출신의 작가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70년대 김형근 작가 이후 처음이다.

보통의 일상과 다를 바 없이 마산 내서읍 상곡리에 위치한 화실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는 그에게 미술대전 대상수상은 속세의 떠들썩한 영화(榮華)일지도 모르지만, 한국화의 비전을 새롭게 열어준 2013년도 경남 예술에 있어 최고의 ‘대박사건’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 어느날의 대화 _ 대상작



KIM KYUNG HYUN

매끈한 청자, 백자보다
노지서 구운 거친 토기에
더 마음 끌린 화가

그 세월의 분신 박덕규 미술관

두해 전 가을, 하반기 결연식이 열린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들은 천년의 시공을 넘나드는 전시와 마주쳤다.
[민족혼으로 빚어낸 토기의 환상 : 박덕규] 展.
발걸음 옮겨 작품 앞에 설 때마다 깊이 새겨졌던 낯선 이름 박덕규.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역 예술인 직접 지원 사업의 첫 대상자 중 1인인
박덕규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다.

글 진강숙 / 사진 구제영



無名畫家

입구에 쌓아 올린 토기에 눈길이 간다. 주인의 손길을 상상하게 만드는 높고 낮은 동산을 돌아들어가니, 햇살 좋은 자리에 파이프를 물고는 자신을 이름 없는 화가라 소개한다. 마치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온 듯 스스럼없는 인사를 서로 나눈다. 기자가 무명화가 박. 덕. 규. 를 만난 풍경이다. 세상 아무리 좋은 작품도 그것을 만든 주인의 손을 벗어나지 않으면 입소문도 유명세도 얻을 수 없는 법.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파는 부모는 없기에 자신의 그림을 시장에 낼 수 없었노라는 박 화백은 56년째, 그의 분신을 켜켜이 쌓아두었다. 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는, 無名이다.

[박덕규 미술관] ; 거짓말하지 않는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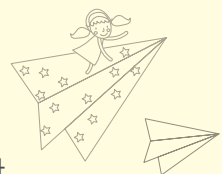
1957년 학교미술교육현장에 몸담은 후 퇴직과 동시에 폐교를 활용해 만든 『박덕규미술관』은 유물관과 전시관, 작가의 작업실로 구분 된다. 유물관은 토기를 주제로 그린 작가의 지난 시간,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과거의 공간이다. 사실주의 작품이 주를 이루는 초기 작품과 1950년대부터 수집한 500여점의 토기, 해방이전에 쓰던 물감과 화구들... 천년 세월의 깊이를 간직한 토기와 손때 묻은 화구는 해방과 전쟁을 온전하게 버텼다.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을 작가에 대한 외경심에 숙연해졌다. 옛 교사였던 전시관엔 몇몇 초기 작품과 70년대 이후 토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 평생 박 화백이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후원한 아내에게마저도 자주 공개하지 않는 작업실. 술술에 온 듯 착각하게 하는 건 테레빈유의 냄새만은 아니다. 술술 오솔길처럼 한 사람 겨우 다닐 만큼의 길목만 남겨둔 작업실엔 3,500여 점의 작품이 마치 그의 분신처럼 방문객을 바라본다. “작가는 붓이 마르면 안 된다.”는 화백의 말을 증명하듯, 캔버스 좁은 옆면엔 작업을 시작한 날짜와 끝낸 날짜들이 빼곡하다. 미술관을 찾은 이가 관람을 위해 전화로 불들지 않으면 끼니도 시간도 잊고 토기와 함께 세월을 넘나드는 망각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만의 토기가 익어간다.

염치

15년째 미술관을 다듬느라 시멘트 블럭에 찍혀 썩은 듯 갈라져버린 시커먼 손톱은 하나도 아프지 않다. “세상 어느 여인이 남편이 돈 안 벌어주는데 살아주나? 집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그림 못 그렸지...” 그림에 빠져 평생 월급 한 푼 쥐어주지 않아도 힘든 내색 없었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아프고, 돌보지 않은 아비에 대한 원망도 없이 잘 자라준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 온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 가난한 그림쟁이의 혼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려 한다.

경남미술대전을 만들고 수차례의 국전 심사와 개인전들은 지나간 일이다. “내가 죽은 후, 누군가 내 그림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그림을 아직 못 그린 것 같다.”는 박 화백의 얼굴에 회한이 서린다. 명작을 향한 빛나는 恨. 한 조각의 사금파리로 그 그릇의 온전함을 상상하듯, 지금 그의 작품을 조각 맞춰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고전을 상상해본다.

‘나의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라는 뜻을 가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가족의 주말 여가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새로운 발견의 시간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글/사진 경남메세나협의회

주식회사 화영과 경남메세나 후원을 받고 있는 ‘춤 공간-나눔’은 2013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 상상하는 아이들!”로 선정되어 밀양시립박물관의 협조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펼쳤다. ‘밀양의 3대 신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30여명의 밀양지역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 고장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가고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 애郷심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지역의 아동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소질을 발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함께 알아가고, 또래 친구들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소통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꿈다락은 아이들의 삶에 아름다운 세상, 큰 웃음을 선사하였다.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진행 후기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끼’와 더 많이 만나고 싶다.

— 기획자 ‘춤 공간-나눔’ 대표 김금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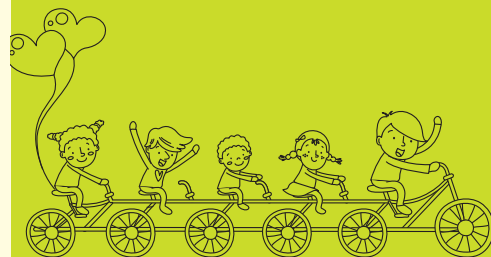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나는 아이들의 통통 튀는 상상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엿볼 수 있었다.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보석 같은 숨겨진 재능들을 만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무궁무진했다. 아~ 내가 ‘꿈다락’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겠지? 어쩌면 각자가 가진 소중한 재능들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채 누구나 똑같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의 재능을 죽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목청이 유난히 카랑카랑한 김나영, 이나영 두 나영이,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하는 민서, 남림이, 어떤 동작도 쉽게 소화해 내는 가은이, 유리, 선천적 기형의 손을 가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어디서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태양이, 언제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픈 욕심쟁이 민지, 채은이.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민진이를 발견한 것은 꿈다락이 준 행운이었다.

모둠활동으로 진행된 노래수업에서 아주 특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도 모르게 귀를 모아 그 주인공을 찾아냈다. 민진이는 쌍둥이 오빠인 동원이와 함께

다녔고 쪽 뽀은 몸매에 춤을 수준급으로 잘 추는 아이였다. 춤만 잘 추는 줄 알았지 노래도 잘 하리라곤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평범하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워서 민요를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 테스트를 받아보았다. 민요를 하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청에 노래를 습득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하셨다. 그 길로 나는 민진이를 위한 특별 수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부모도 반신반의하며 관심이 없었다. 괜한 시간적, 금전적 투자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전해 보고 싶었다. 다행히 메세나 결연금으로 민진이를 교육할 수 있었다. 3개월 훈련 뒤, 밀양아리랑 경창대회에 출전하여 학생, 일반부를 통틀어 전체 대상을 받아 모두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상금 100만원도 거머쥐었다. 그제서야 부모님도 너무 감사해했고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로 결정했다. 한 달 후 전국민요경창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꿈다락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민진이를 보며 아이들의 ‘꿈의 아지트’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 뿌듯했다. 앞으로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계속하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끼’와 더 많이 만나고 싶다.



2013
경남
메세나

회원사
소개

2013. 12. 24 현재

	기업(단체)명		대표자
	회장	경남은행	은행장 박영민
부회장	기업(단체)명		대표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전315아트센터	관장	도난실
	경남오페라단	단장	정찬희
	(주)경한코리아	회장	이상연
	(주)고려칠강	대표이사	한철수
	(주)무학	회장	최재호
	삼원테크(주)	대표이사	이택우
	(주)센트랄	회장	강태홍
	우수AMS(주)	회장	전종인
	피케이밸브(주)	대표이사	박한근
감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청호산업개발(주)	회장	이동기
이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가창연극제육성진흥회	회장	이종일
	경남도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최낙영
	경남에너지(주)	본부장	이성기
	경남은행	본부장	박태훈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인호
	경원벤텍(주)	대표이사	공경열
	(주)고구려	대표이사	임채현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전익수
	(주)베라호텔	대표이사	김태영
	범무법인 금강	대표	김원태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신화철강(주)	대표이사	정현숙
	원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조성세
	(주)인산가	회장	김윤세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김도기
	한국민예총경남지회	지회장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회장	공병철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김의수
	(주)현대조	대표이사	마평수
	화성GS(주)	대표이사	김원철
	(주)화영	대표이사	이흥원
	(주)인테크놀리지	대표이사	서영옥
	STX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정성립
	이큰병원	행정원장	박창석
회원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가이BS(주)	회장	정문훈
	(주)강민종합건설	대표이사	백승훈
	거제레미콘(주)	대표이사	김정자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호일
	거제컨벤션웨딩뷔페	대표	김술
	경남스탈(주)	대표이사	최충경
	경남신문	회장	정중권
	경원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김세민
	고운치과병원	병원장	고철수
	광덕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광주
	광신기계공업(주)	대표이사	권환주
	(주)구구	대표이사	이재철
	(주)국제전기	대표이사	황정봉
	그린산업(주)	대표이사	정병홍
	(합)자금강전기공업사	대표	양우석
	금강중기	회장	손병철
	금성이노텍(주)	대표이사	전도열
	(주)금슬개발	대표이사	윤정현
	(주)기산산업	대표이사	최주철
	기산산업(주)	대표이사	임광택
	김해시공영(유)	대표이사	김용하
	낙우산업(주)	대표이사	이웅민
	남명산업개발(주)	회장	이병열
	(주)네오씨터말	대표이사	백낙림
	(주)노키아티엠씨	대표이사	김기순

기업(단체)명		대표자
대경건설(주)	회장	이윤우
(주)대동주택	대표이사	곽인환
대방스페셜스틸(주)	대표이사	김양규
대신주조(주)	대표이사	조용학
대신금속(주)	대표이사	박수현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표	박기택
대우백화점	대표	이윤수
대한전선전기(주)	대표이사	신종철
(주)대호엘엠아이	대표이사	김종수
(주)덕광중공업	대표이사	이상석
(주)동구기업	대표이사	류병현
동명다이어몬드	대표	강신규
동양특수금속(주)	대표이사	전달선
(주)동우프랜지	대표이사	최옥철
(주)동은화학	대표이사	박창원
동인하이텍(주)	대표이사	황도연
동환산업(주)	회장	고동환
두남화학	대표	김두선
디씨엠(주)	대표이사	정연택
디케이리(주)	대표이사	노은식
라운건설(주)	대표이사	손정수
마산정안과	대표원장	정기용
명성개발(주)	대표이사	이성원
명제한의원	원장	이동준
무림메이퍼(주)	대표이사	김인중
문운수치과의원	원장	문윤수
미르치과의원	원장	박 욱
미즈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우
미즈맘 여성병원	대표원장	이덕희
범한산업(주)	대표이사	정영식
(주)베스트엔드베스트	대표이사	서준호
(주)보강기업	대표이사	김경고
(주)부경	대표이사	김찬모
(주)부일이앤씨	대표이사	김 철
(주)복성산업	대표이사	박환병
비에이치아이(주)	대표이사	우종인
(주)사림	대표이사	고재곤
(주)신호수출포장	대표이사	최은수
(주)상보산업	회장	윤병고
삼우금속공업(주)	회장	방효철
삼원동관(주)	대표이사	김갑수
(주)상전건설	대표이사	정연문
삼정기업	사장	최정두
(주)삼정타인	대표이사	정진욱
삼흥열처리	대표	주보원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원장	이창열
(유)상화도장개발	대표이사	이년호
선관자모의원	원장	이성동
성부가스산업(주)	대표이사	박도일
(주)성우	대표이사	이상길
(주)성환금속	대표이사	윤성환
(주)세복	대표이사	김복기
(주)세강정공	대표이사	유병현
(주)세호테크	대표이사	박인식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현
승진기계(주)	대표이사	백규영
시영건설(주)	대표이사	조경용
신광에이스전기(주)	대표이사	김강민
신대양(주)	대표이사	박종준
신동방산업(주)	대표이사	성대규
신오프드시스템(주)	대표이사	최상찬
(주)신우공업	회장	신용문
신창기계	대표	구자도
(주)신한물산	대표이사	조현민
(주)세노텍	대표이사	김억근
(주)에드테크	대표이사	박기용
(주)에스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백화진
에이스브이	대표이사	구윤희
영광산업(주)	대표이사	정현석
(주)영남엘피씨	대표이사	장환달
영민테크	대표님	김민호
(주)영신화공	대표이사	강영진

기업(단체)명		대표자
(주)영일정공	대표이사	유병일
(주)영창기업	대표이사	이강대
예인여성병원	원장	정경효
(주)오곡산업	대표이사	윤종열
오션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경국
(주)옥산아이엔티	대표이사	조동원
원 한의원	원장	원호영
원광산업석재	대표	이상섭
(주)웰템	대표이사	박정우
유니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류재기
유림건설(주)	대표이사	노철효
(주)유림철강	대표이사	상재
유전공업(주)	대표이사	류재기
윤한의원	원장	윤진구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사무국장	정지영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이사장	이종삼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사장	김원숙
(유)이상사보이호텔	대표이사	홍종대
(주)이엔티	대표이사	박갑진
(주)이우	회장	최병철
인산축염촌(주)	대표이사	최은아
인화정공(주)	대표이사	이 인
일림노텍(주)	회장	박효찬
(주)장성도라지	대표이사	이영춘
(주)장성D.P.S	대표이사	신종길
(주)장한	대표이사	장이근
장남종합건설(주)	회장	송한영
(주)정문에드테크	대표이사	윤수일
출은날	대표이사	명태균
주용테크	대표	류신재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여불규
(주)중앙금속	대표이사	정영진
중앙종합건설(주)	회장	안권상
(주)지에스비	대표이사	이수부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유화경
(주)창원자동차학원	대표이사	김진열
청아의료재단	이사장	최재영
초심공업(주)	대표이사	석현목
츄고루상화메인트(주)	대표이사	시마다카츠스케
(주)케이씨	대표이사	이정열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쿠루쿠시스(주)	회장	구자신
태광산업(주)	회장	박용길
(주)태완정공	사장	박수원
(주)태원메가텍	대표이사	박병철
(주)포스텍	대표이사	조옥성
포스코특수강(주)	대표이사	조노하
하이에코코리아(주)	대표이사	김근배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본부장	이근택
한국소니전자(주)	대표이사	김제현
(주)한국아니세	회장	우영준
(주)한국자연환경	대표이사	최충철
한국정기공업(주)	대표이사	류홍목
한국제강(주)	회장	하종식
한국대양유전(주)	대표이사	스즈키마치히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하성용
해성메탈(주)	대표이사	손군환
해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분옥
(주)현대기업	대표이사	이호철
(주)호텔인터내셔널	회장	윤영호
흥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황동열
화이트치과	원장	이우근
화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복원
(주)화영	대표이사	손화현
(주)화인에이티씨	대표이사	윤상대
(주)환웅전기	대표이사	한장규
(주)환웅정공	사무이사	한석용
흥일기업(주)	회장	윤한생
(주)ONE	대표	이종호
PS엔터테인먼트	대표	최민선
STX엔진(주)	대표이사	최임엽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 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회원사 협력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자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공감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을 제공합니다.

문화경영도서 : CEO를 위한 문화경영 관련 도서를 배부합니다.

지정기탁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문화 나눔사업 SHARING ART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지휘자 금년새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대상 시행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